


보도자료 2013. 2. 15.	 <div>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div>	
	담당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담당자	제1심의관 이효제 (☎3480-1274) 제2심의관 배용준 (☎3480-1289)
	공보관실 ☎ 3480-14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

■ 대법원장은 이인복 대법관,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을 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하였음

【내 정 내 용】

-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 및 김진권 중앙선거관리위원(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후임 위원으로 이인복 대법관 및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을 각 내정하였음
- 이인복 내정자는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 및 직원들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업무처리에서는 빈틈이 없는 법관으로서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음

- 조병현 내정자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과 정확하고 소신있는 판결로 소송당사자들의 재판에 대한 승복도가 높고,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음
- 이인복 대법관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장을,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장을 각 역임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힘써왔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 할 것임
-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었던 관례에 따르면, 이인복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위원으로 지명된 후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예상됨

【인 사 청 문】

- 대법원장은 곧 이인복, 조병현 내정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임
-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함

이인복(李仁馥) 대법관

○ 약력

1956. 8. 5.생 (56세). 충남 논산 출생

1974. 1. 대전고 졸업

1978. 2. 서울대 법대 졸업

1979. 6. 제21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1기)

1984. 9.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9. 3. 제주지법 판사

1991. 2. 서울고법 판사

1995. 9. 서울지법 판사

1997. 9.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2001. 2. 서울지법 부장판사

2005.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0. 2.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986. 9.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1990. 9.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

1993. 9. 헌법재판소 파견

1996. 3.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1998. 3. 사법연수원 교수

2003. 2. 대전고법 부장판사

2010. 2. 춘천지방법원장

2010. 9. 대법원 대법관(現)

○ 프로필

198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함.

특히, 서울고등법원의 민사부 및 행정부(공정거래전담) 재판장으로서 연명치료 중단이나 은행지로수수료 담합사건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 등에 대하여 명쾌한 법리와 구체적 타당성이 조화된 설득력있는 결론을 도출하여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사전에 기록을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법정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능력이 우수하여 재

판진행이 명쾌하고 부드러우며, 사건의 신속한 처리나 지엽적인 법리에만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법정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쌍방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급적 폭넓은 입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해 사건에 있어 구체적으로 가장 타당한 결론의 도출을 위해 노력함. 특히 당사자들의 속마음까지 들어주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등 허심탄회한 법정 분위기를 조성하여 당사자들로부터 호응이 매우 높음.

대법관으로서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물의 본질에 관한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고심 사건에서 가장 적정한 법과 정의를 선언하여 왔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중요시하는 대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음.

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춘천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따뜻하고 소탈하고 친화력 있는 성품을 바탕으로 선후배 및 동료법관과 법원직원들과 사이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법원 내부에서도 신망이 매우 두터움. 후배법관 및 법원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싶은 상사로서 첫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인기가 많음.

부인 송순희 여사와 사이에 2남.

조병현(趙炳顯) 대전고등법원장

○ 약력

1955. 3. 2.생 (57세). 경북 포항 출생

1974. 2. 경남고 졸업

1978. 2. 서울대 법대 졸업

1979. 6. 제21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1기)



1984. 9.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6. 9.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1989. 3.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1991. 2. 서울고법 판사

1992. 8. 서울형사지법 판사(직무대리)

1994. 3.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6. 3. 부산지법 울산지원 부장판사

1998. 3. 수원지법 부장판사

1999. 3.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2000. 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3. 2. 대전고법 부장판사

2004. 2.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2005.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0. 2. 부산지방법원장

2010. 2.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1. 2. 서울행정법원장

2012. 9. 대구고등법원장

2013. 2. 대전고등법원장(現)

○ 프로필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음.

서울고등법원 선임형사부 재판장으로서 공판중심주의 강화, 양형심리의 충실화, 양형편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권력형 부패 사건 등 사회지도층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양형으로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음.

서울고등법원의 행정부 재판장,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장으로서 사회적 파장이 큰 주

요 사건, 우리나라에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 등에 대하여 균형 잡힌 시각과 명쾌한 법리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음. 특히,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 회부결정 제도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 직권중재조항이 삭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면 관련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공고히 하였으며,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확장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는 등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법관들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었고, 지역 방송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프로야구 경기에서 직접 시구를 하는 등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낮은 자세와 소탈한 리더십을 보였음. 특히 재판업무에서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의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여 1사1촌 자매결연, 지역봉사활동, 지역대학과의 학술교류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하였음.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인 김운미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 아들 재현씨는 사법연수원 39기이고 현재 군법무관 복무중임.